

한국불교의 개혁

朴 廣 緒

1. 들어가는 말
2. 불교는 21세기의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3. 한국불교의 현실과 개혁의 과제
4.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한국사회는 지금 가치관의 혼돈 속에 흔들리고 있다. 국민들은 그래도 뭔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낱 허상일 뿐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별거벗은 모습에 얼마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불교계 역시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 하면 우리 스스로를 진솔하게 확인하는 명쾌한 순간이 가장 단단한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보살은 결과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그 원인을 두려워하며, 중생은 결과만 두려워하지 그 원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菩薩 畏因, 衆生 畏果)’는 불가(佛家)의 가르침이 새롭게 느껴지는 시대이다. 돌을 던지면 사자(菩薩)는 그 돌을 던진 사람에게 달려 들지만, 개(衆生)는 그 돌을 쫓는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과 사회를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해 준 동아연구소 측에 감사드리면서, 불교가 21세기의 가치로서 존속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혁의 과제, 그리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요약식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불교는 21세기의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저명 인사들의 견해와 함께 불교가 21세기의 가치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가. 아시아적 가치로서의 불교

유럽의 문명은 '아주 독특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결코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다.(S. Huntington, *The west: Unique, Not Universal*, 1996)' 지난 날 우리는 아무런 비판 없이 그것을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왔다. 문제는 바로 그 점에 있다. 서구 사회에 뒤이어 경제발전에 성공하고 있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 주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서구인들에 의해 먼저 제기된 지금까지의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에 대한 논의는 극히 제한된 내용과 범위 내에서 -특히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의 '유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시아적 가치'의 논의에 담긴 함의를 한층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완전히 배제되어 온 지적·정신적 유산들, 특히 '불교'에 주목해야 한다.⁴²⁾

나. 미래의 종교

20세기의 가장 큰 사건은 불교가 서구에 소개된 것이다. 불교의 합리주의적 교리체계가 현대사회에 합치되며, 미래의 세계는 보살도의 실천으로 중생고통을 함께 해야 인류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⁴³⁾

한 마디로 20세기 동안에 불교는 방치되어 있었다. 지성의 현장에서 추방되어 있었다. 식자의 관심 속에 소외되어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21세기는 불교의 중흥의 세기가 될 것이다. 불교적 가치가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위를 점하는 그러한 세기가 될 것이다.⁴⁴⁾

인류가 다음의 세기에 수용해야 할 사고의 패러다임 즉 문화의 틀은 불교나 노장(老莊)사상으로 대표되는 동양적인 것이어야 할 듯 싶다.⁴⁵⁾

미국의 불교신자 수가 6백만에 이르고, 99년 8월15일 달라이라마가 초청된 센트럴 파크에 4만여명의 군중이 모여들었고, 불란서에도 1백만이나 되는 불교신자의 급증으로 제3의 종교로 부상하는 등 세계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제 불교는 동양인들의 전유물에서 미래 인류의 종교로 부각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 김석근, 『아시아적 가치와 불교: 새 문명의 모색과 지적 유산의 재발견』, 1999

43) 토인비(Arnold J. Toynbee; 1889~1975)

44) 김용옥, 「화두, 혜능과 세익스피어」, 1998

45) 박이문, 「문명의 위기와 문화의 전환: 생태학적 세계관을 위하여」, 1996

다. 생태학적 세계관

어떤 사물이나 인간도 완전히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다만 다른 사물들이나 인간들과의 상호작용이나 관계로서만이 존재하고 인식된다고 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으며, 이 우주 안의 그 어느 하나도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본질에 있어서는 다른 존재들의 결합이라는 확신이 자각의 실체이며 불교의 이른바 연기론(緣起論)적 입장이다. 유형의 모든 사물들은 물론 무형의 모든 정신작용들도 그물코와 같이 서로 얽혀 있어서 그 중 어느 하나가 움직여도 다른 모든 것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따라서 이 우주 안의 모든 것을 한 덩어리, 한 생명체인 유기적 공동체로서 파악하여야 한다.

《화엄경(華嚴經)》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인드라(Indra)의 진주 그물에서도 일(一)과 다(多)가 상즉상입(相卽相入)하는 중중무진법계연기(重重無盡法界緣起)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인드라의 하늘에는 하나만 보아도 나머지 전체 보석의
영상이 모두 보이게 되어 있는 진주 그물이 있나니, 이
것은 세계 속의 어떤 물체라도 그 자체로서 독립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물체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물체가 곧 다른 모든 물체임을 뜻한다.

이와 같이 삼라만상의 상의상존적(相依相存的) 관계와 동체적(同體的) 질서를 자각한 자는 일체의 존재를 나의 일부로 여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불교를 비롯한 동양의 자비는 인간중심이 아니라 생명중심이며 살아 있는 모든 것들(一切衆生)은 생명의 큰 뿌리에서 나누어진 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것은 당연하다.

심각한 지구환경오염에 대한 문제해결의 철학은 자연을 포함한 모든 것들의 우주적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불교적 세계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세계 석학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평화의 종교

세계적인 종교 중 종교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종교는 불교뿐이다.⁴⁶⁾

불교는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의 특성에 적응하고 새로운 필요에 부합하는 데 뛰어난 포용력을 발휘했다. 아마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종교들 중에서 그 어떠한 종교도 불교만큼 그러한 포용력을 보여준 종교는 없을 것이다.⁴⁷⁾

삼라만상의 모든 개체들은 다 연관성이 있고 각각 대등한 존재로서 그 어떤 사물이나 인격체도 완전히 독립적이고 절대적이며 영원한 것은 없다. 따라서 신(神)도 부처도 절대자일 수 없다. 이 차원에서는 불교의 절대평등의 경지를 말하고 있으며, 불교라는 관념(法執)에서조차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해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도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도 죽이라(殺佛殺祖)’고도 가르친다. 고정불변의 실체를 부정하고(無我) 무상(無常)한 상대성 그 자체를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불교의 연기론적 입장 때문에 불교가 여러 민족, 다양한 문화 속에 전파되면서도 비교적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고 융화될 수 있었다.

46) 야스퍼스(Karl Jaspers; 1883~1969)

47) 케네스 첸, 『불교의 이해』, 1994

마. 과학시대의 종교

현대과학에 결여된 부분을 메워 주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불교이다.⁴⁸⁾

원자이론의 가르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석가 모니 부처나 노자(老子)와 같은 사상가들이 일찍이 부딪쳤던 인식론적 문제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⁴⁹⁾

서구과학의 대가들은 한결같이 불교와 과학의 상호보완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불교적 인식론을 참조할 것을 강조했다. 과학은 불교철학이 시사하는 깊은 의미를 늘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고, 불교 또한 분석적 과정을 소홀히 한 직관만으로는 본질의 파악에 미흡하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문명사적 전환기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불교적 세계관이 서구과학문명의 모순과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인류의 미래를 함께 열어 갈 수 있을가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바. 민족문화의 뿌리

인도를 잃더라도 셰익스피어를 잃을 수는 없다.⁵⁰⁾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문화유산을 더 사랑하는 영국인들의 속담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새롭게 다가온다. 우리 사회는 지난 1세기 동안 외세의 물결 속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채

48)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1879~1955)

49) 보어(Niels Bohr; 1885~1962)

50) 카알라일(Thomas Carlyle; 1795~1881)

서구문물만을 모방하는 데 진력해왔다. 외국 것이라면 모래땅에 물 붓기 식으로 흡수하기에만 열중한 나머지 우리 문화의 승계발전은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특히 문화사대주의에 젖어있거나 문화문맹인 다수의 정치·사회 지도자들은 사고에서부터 언어·행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것은 잊거나 버리기 바빴고 그 길만이 살길인 것처럼 앞장서왔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면서 국적 없는 문화로 변질시킨 우리네 속성을 두고 변방기질이라고 자조하고 있지 않은가. 취사에 여유로움과 당당함이 아쉽다.

정신문화의 중요한 한 축인 종교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민족문화의 큰 흐름이었던 불교, 그리고 현재도 국민의 1/4이 불교신자이고 문화재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불교문화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자신있어 하는가. 외국인의 눈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교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다반사로 있어온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은 우려할 만하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한국에서는 불교를 모르고서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볼 일이다.

3. 한국불교의 현실과 개혁의 과제

가. 재가신도의 이기적 신앙 극복

특정인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만이 깨달음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면, 재가불자들에게 있어서 이 생은 그저 한낱 소모적인 삶에 불과하다. 또한 시대와 함께 하는 불교문화의 창출을 위해서도 재가불자들의 신행 형태는 다양하게 바뀌어야 한다.

재가불자들의 올바른 자세정립과 올바른 신행운동은 참다운 불교의 정립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 가르침이나 이기적 구복(求福)에 머무르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삶의 현장이 곧 수행의 장이라는 투철한 결사정신으로 수행 정진함과 동시에 재가이기에 더 절실하게 느끼고 더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불사(佛事)를 넓게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보여야 한다.

나. 청정교단 만들기

① 출가정신과 계율정신의 회복

삼일 마음 닦음은 천년의 보배요(三日修心 千載寶),
백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의 티끌이라.(百年食物 一朝塵)⁵¹⁾

배슬(拜膝)이 여빙(如水)이라도 무연화심(無戀火心)하며
아장(餓腸)이 여절(如切)이라도 무구식념(無求食念)이니
라. 홀지백년(忽至百年)이어늘 운하불학(云何不學)이며
일생(一生)이 기하(幾何)관대 불수방일(不修放逸)고. 행
자나망(行者羅網)은 구피상피(狗被象皮)요, 도인연회(道人戀懷)는 위입서궁(蝸入鼠宮)이니라.⁵²⁾

출가는 더 큰 자유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남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많은 출가수행자들이 세속의 켜든 때를 벗기 위해

51) 야운(野雲), 《自警文》

52) 원효, 《發心修行章》

용맹정진하고 있음은 한국불교의 희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의 자정능력에 의심이 갈만한 사건들이 소수 권승들에 의해 반복되고 있음은 한국불교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네티즌 1만6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999년도에 가장 짜증나는 사건으로 옷로비 사건과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에 이어 조계종 폭력사태가 세 번째로 끼었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한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가 기폭제가 되어 시작된 대처승 척결이라는 명분의 불교정화의 후유증은 종권 획득을 위한 끊임없는 분규로 이어졌다. 총무원장과 종정, 종회의 권한 분쟁이 있었고 폭력과 총무원 청사 및 사찰의 점거, 지리한 법정분쟁이 반드시 뒤따랐다. 지난 40여년 간의 종단분규로 인해 삼보정재의 탕진, 승·재가에 대한 교육의 부재, 사회적 기능의 상실 등을 자초하였다.

아직도 불교계에 폭력의 그늘이 상존하고 재물과 권력을 향한 욕망이 거두어지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출가정신의 실종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불교계에서 반불교적·반사회적 폐습을 제거함으로써 본래의 청정한 모습을 되찾는 일은 불자들의 결연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② 사찰의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99년도 말 ‘부정부패추방 시민연합’이 주관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국민들이 개신교 목사와 함께 불교승려를 부패한 집단으로 지목해 성직자들에 대한 세인의 불신이 깊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불교의 경우 재산과 종권 싸움으로 비쳐진 지난 1년간의 조계종사태 직후

라서 묘한 시기이긴 했지만 어쨌든 불교계가 국민이 우려하는 집단으로 비쳐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사찰재정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미흡한 제도에 있다. 재정의 투명성은 시대적 요청이고 종교계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익숙해져온 인습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고 실제 많은 사찰에서는 투명하게 할 것조차 없을 만큼 경제사정이 열악하지만, 불신의 진원지인 대형 사찰 중심으로 재정의 투명도와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는 불자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③ 승가·재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한국불교는 원효(元曉)로 상징되는 신라의 새벽불교로 시작하여, 보조(佛日普照)로 대표되는 고려의 대낮불교를 거쳐, 서산(西山)을 구심점으로 다시 꿈틀거린 조선의 석양불교를 지나, 지금은 월자문중(月字門中)이 설치하는 밤의 불교라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고들 빗대기도 한다. 조선시대의 승유배불 정책, 일제기의 대처승제 도입, 그리고 해방 후 무리한 정화불사로 인한 교육부재와 그에 따른 승려자질의 저하는 한국불교가 스스로의 무게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사자의 몸을 파먹어 들어가는 사자충 같이 한국불교를 허물어 가는 세력이 다름 아닌 종단의 소수 지도급 승려들이라는 현실을 우리 불자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출·재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불교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사회의식의 고양 없이는 불교의 미래는 없다.

다. 민주적 교단운영

① 대중의견 수렴(산중공의)

승가에는 대중들이 모여 개인마다 소임을 정하고 매사를 위아래 없이 의견을 개진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대중공사라는 전통이 있다. 법계에는 엄격한 위계와 질서가 있지만, 일상적 교단운영을 논의하는 데는 부처님 당시부터 이처럼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평등을 지켜오고 있던 셈이다. 따라서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교단운영은 비불교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곧 대중의 반발을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혼란과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98년의 조계종사태이다.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종정중심제를 주장하던 당시 종정 월하스님은 “힘있는 자가 이기는 법이야”라면서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예상 밖의 언행으로 불자대중과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고 결국 종헌종법 수호를 내세우던 당시 집행부에게 밀려나게 되었다. 월하스님이 1980년 전후 종정중심제에 반대하고 나선 개운사파의 총무원장이었다는 사실을 돌아볼 때, 월하스님의 종정중심제 주장은 종단운영의 이념과 원칙에서가 아니라 종권 장악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나 의심스럽다. 더구나 절대권위를 누리는 통도사식 운영방식을 종단 전체에도 그대로 적용하려 했던 무모함으로 인해 월하스님 개인은 물론 불교계 전체가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② 재가불자의 교단운영 참여;

복잡한 현대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분야마다 전문화하고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교

계 특히 최대종단인 조계종인 경우 재가불자들이 제도적으로 교단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것은 곧 전문성의 약화와 비효율적 인력운용, 더 나아가서 재가불자들의 주인의식 결여로 이어져 종단적 손실로 나타난다.

더구나 수행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소수의 출가승(이판승)을 제외한 일반불자들과 접촉하게 되는 대부분의 승려들(사판승)은 ‘재산관리자 또는 영혼관리자’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볼 일이다. 그것은 본업인 ‘수행과 교화’는 휴업상태인 채 재정·인사·행정·사찰건물·산림·문화재 그리고 각종 의식 및 재(영혼을 위한 제사) 관리로 많은 출가인력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출가는 왜 하는가. 그런 일상사 때문에 수행을 멀리하고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교화나 신도의 교육을 방치하고 있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출가승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서 종단의 모든 종무역량도 수행풍토를 건설하게 하고 대중교화를 극대화하는 데 모아져야 하며, 조직과 행정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교육 받은 전문 재가자들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라. 자주권 회복

① 정치권 유착 및 예속화 근절

서구세력의 물질적 제도적인 지원 아래 커온 타종교에 비해 조직력과 지원세력이 없는 불교계는 정치권에 기대기, 눈치보기, 알아서 기기, 선거에 휘말리기 등 정치권에 이용당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예속화의 길을 걷는 경우까지 있어온 부끄러운 과

거가 있다.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마저 지켜내지 못한 데는 정치권의 힘의 논리에도 일부 원인이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힘있는 곳을 향해 엎드려온 종단 지도부의 왕조시대 의식이 주요 원인이 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해인사까지 왔는데도 암자에서 내려가 보지도 않은 전 종정 성철스님의 고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수행자로서의 최소한의 기개와 당당함은 불교를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도 있어야 할 덕목이다.

② 사회법 의존 탈피

반세기에 걸친 종단분규 때문에 얻게된 불교계의 악습 중의 하나는 대화와 자체규율(종헌종법)보다 세속법에 의존하는 태도이다. 자비와 화합을 내세우는 종교가 사회법의 잣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모두 패자가 되고 만다. 99년 10월의 조계종 총무원장 자격 없음을 판결한 소위 '재판부 오판' 사태는 얼마나 많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는가.

어느 집단이나 크고 작은 내부 갈등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성숙한 집단일수록 문제를 합의된 내부규율과 대화로서 풀고, 그렇지 못한 집단인 경우 외부세력과 잣대로 해결하려 하기 마련이다. 사회를 이끌어줄 높은 도덕성과 안정된 화합분위기가 요구되는 종교계의 사회법 의존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마. 사회회향

자기 자신이나 불교와는 무관할 것 같은 사회의 고통과 구조적

모순들이 결국 그 개인과 불교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이고 동체대비요 공업 중생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모든 사회문제들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책임이다. 따라서 불교가 그동안 교육을 등한히 해 왔고 사회로 열린 불사(佛事)를 외면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잃어 가고 있으며, 그것은 자업자득이다. 이제부터라도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① 연기적 세계관과 깨달음의 사회성

보리는 중생에 속한 것이니 중생이 없으면 일체 보살이 마침내 무상정각을 이루지 못하느니라.⁵³⁾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해도 그 국토의 사람들이 미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절대로 깨달음을 얻지 않으리라.⁵⁴⁾

② 불교적 가치의 사회적 구현(구체화, 현실화)

지구 차원을 넘어서 아예 우주적인 각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작은 사회 속에서 윤리도 제시하지 못하고 행동도 보여 주지 못한다면 그러한 가르침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동체대비(同體大悲), 공업중생(共業衆生), 연기세계(緣起世界)라는 말들이 더 이상 공허하게 들리지 않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생고와 사회고의 해결에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모

53) 《화엄경》, 〈보현행원품〉

54) 《무량수경》

든 가르침들을 지체없이 실천해 보이는 불자들의 적극적인 행동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삶, 남을 위한 삶, 남북통일과 지역갈등의 해소, 사회 맑히기 운동 등의 공동체적 삶을 위한 열린 불사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환경운동, 사회복지사업, 인권운동, 통일운동, 정치 바로 세우기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깊은 종교적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시류에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불교가치의 사회화는 앞당길수록 인류에게 유익할 것이다.

4. 맺는말

깨달음과 배움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깨달은 바와 배운 바가 실천에 옮겨지고 그 향기가 이웃을 감동시킬 때 비로소 깨달음과 배움은 마쳐지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들을 선도해야 할 불교계가 오히려 일반사회가 염려해야 하는 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것은 ‘수행과 교화’, 즉 ‘무소유와 책임(이웃과 사회에 대한)’을 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불교지도자들이 오히려 ‘소유와 무책임’의 모습을 보여준 결과로 뼈아프게 참회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불자는 달라져야 하고, 한국불교는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산중에 갇혀 있거나 경전 속에 묻혀 있어서는 안된다. 가르침 따로 행 따로, 종교 따로 삶 따로라면 그 가르침이나 종교는 이미 개인이나 사회를 이끌어 갈 힘이 없는 죽은 가르침이며 종교이다. 불교가 구체적이고도 현실

적인 중생제도의 종교, 이 시대 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의연한 종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 모두의 철저한 역사적 반성과 미래를 꿰뚫는 안목,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대승적 재해석과 그에 따른 보살도의 실천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